

✓ I사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남 >

Q



뉴스홈 | **최신기사** 

# 경제살리기 초당협력..中企지원 급류(종합)

송고시간 I 2008-09-25 19:10











<경제살리기 초당협력..中企지원 급류>(종합)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 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방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 '구출'의 전면에 나섰고 금융권도 유동성 공 급을 통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 中企 위기상황 공유.."흑자도산 막자"

정 대표는 이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을 활성화하고 보증 배수를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요청했으 며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태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 대표가 초당적 대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키코 사태로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없도 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미국발(發) 금융 위기와 원.달러 급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한 키코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오히려 피해가 눈덩이처 럼 불어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제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금융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 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 전방위 지원 착수

정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모인 가 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대출 만기 1년 연장,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극 활용, 우량 중소기업 선별 지원,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선별 지원이나 만기 연장.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의 정책자금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난 12일 체결한 5개 국책 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 공단은 다음 달부터 신보와 기보의 보증,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심사능력 등을 총동원해 전대(On-lending) 방식으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풀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도를 강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화하기로 했다.

◇ 중기대출 보증한도 상향 검토

기보와 신보는 보증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 대표의 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중소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대책을 다듬고 있다.

규정상 보증기금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신보의 기본재산(일반보증)은 지난해 약 2조4천억 원으로 약 48조 원까지, 기보의 경우 약 1조4천억 원의 20배인 28조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보증잔액은 신보가 28조5천억 원, 기보가 11조2천 억원에 불과하다. 과도하게 보증을 하면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12배 안팎에서 보증 배수를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책으로는 무작정 보증 한도를 높이기보다는 신용평가나 보증의 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신보의 경우 1개 업체당 보증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면 같은 보증 배수에서도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출연금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과 관련된 일부 제한적인 요소들을 완화해 보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증기관의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인수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할 때 기보와 신보가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키코 손실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증기관, 은행 등은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작업반(TF)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피해 기업이 은행 협의체에 전체 파생상품 거래 규모 및 내용과 함께 지원을 요청하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별 분담금액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출자 전환과 대출 지원, 수수료 감면 가운데 은행이 선택한다.

다만 신보와 기보가 일부 보증을 하고 추가 지원하는 자금으로는 파생 관련 손실을 정리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 공단을 통해 회생특례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26일 여신담당자 회의를 갖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은행들도 지원에 동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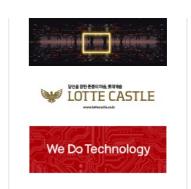
하나은행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되 담보보다는 현금 흐름과 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심시하고 원자재 구 입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부터 기업회생 TF를 가동한데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해진 업체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적은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업은행은 대출 금리를 평균 2%포인트 이상 낮춘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희망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들과 성장 유망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보와 '정부 R&D 과제 특례보증' 협약을 맺고 5천억 원을 지원하되 0.5%의 보증료를 감면하고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자 연체나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애로 지원반을 적극 가동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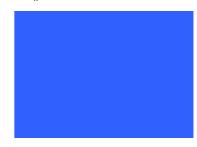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8 힐예정"

뭐하고 놀까? ## 讲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웹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전체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덱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